

<2014 음식문화 특별전> ‘한국의 미美, 떡살’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고 하였다. 떡살은 마치 문양으로 고명을 얹은 것처럼 떡에 문양을 찍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떡을 보기 좋게 만들어 미감과 식감을 돋운 것이다. 소박하고 간결하지만, 떡살은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한 더없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에서 명품 떡살들을 모아 <2014 음식문화 특별전> ‘한국의 미美, 떡살 -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를 개최한다. 전시기간은 4월 11일(금)부터 6월 1일(일)까지이다. 전시유물은 총 100여점으로 관동대박물관의 도자기 떡살 65점, 대구가톨릭대박물관의 목재 떡살 25점, 시민 소장 떡살 10점 등이다.

관동대학교 박물관의 자기 떡살은 1960년대 미국인 로버트 래스(Robert H.Rath)가 한국에 경인에너지 고문으로 있으면서 하나하나 수집한 것으로 그 딸 폴 래스가 2008년에 기증한 것이다. 19~20세기 조선시대 관요(官窯)로 유명한 경기도 광주와 여주 일대에서 생산된 품격 높은 떡살들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은 목재 떡살 5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떡살 소장처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떡살은 그 중에서 보기 드문 문양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을 선정한 것이다.

시민 소장 떡살은 공모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떡살들을 수집한 것이다. 시민들과 같이하는 전시의 하나로 시도한 것으로, 그 중에는 시아버지가 시집오는 며느리에게, 혼수함에 혼서지와 함께 담아 내려준 떡살도 있다.

떡살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기하, 식물, 문자, 동물 문양 등으로 떡살에 염원을 새겨 부귀와 다남, 풍요와 다산, 오복과 장수를 기원했다. 이번 전시에서 여러 형태의 떡살과 함께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떡살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전주에서 떡살에 담긴 미美와 정情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떡살을 기꺼이 출품해 준 대학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 4. 11(금) 부터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